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4**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잠언·마태복음
구역예배·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은혜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6장 ~ 마태복음 10장
- 16 1과 사람이 변성하기 시작할 때에
- 24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11장 ~ 마태복음 16장
- 32 2과 너를 위하여
- 40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17장 ~ 마태복음 22장
- 48 3과 다 준행하였더라
- 56 매일성경묵상 잠언 3장 ~ 잠언 8장
- 64 4과 홍수 후에 노아가
- 72 매일성경묵상 잠언 9장 ~ 잠언 11장
- 76 부록 모세4

4 April 2014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마태복음 6장 ←	2 마태복음 7장
6 ←	7 마태복음 11장	8 마태복음 12장	9 마태복음 13장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3 → 종려주일	14 마태복음 17장 ←	15 마태복음 18장	16 마태복음 19장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0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예배	21 잠언 3장	22 잠언 4장	23 잠언 5장
27 제2차 화습 · 세례식 장애인주일	28 잠언 9장	29 잠언 10장	30 잠언 11장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마태복음 8장

4 마태복음 9장

5 마태복음 10장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0 마태복음 14장

11 마태복음 15장

12 마태복음 16장

17 마태복음 20장

18 마태복음 21장

19 마태복음 22장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24 잠언 6장

25 잠언 7장

26 잠언 8장

교회 주요 일정

3월 5일 ~ 4월 13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3일

종려주일

4월 14일 ~ 1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8일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4월 20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예배

4월 27일

제2차 학습·세례식

장애인주일

나의 주요 일정

- ① 사순절기(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은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4~36).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 정하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히려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거기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2014년 4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함에 있어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1~18절). 또한 각 단락의 끝마다 순결한 자세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상급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4,18절)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큰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5~6절), 중언부언하는 기도(7~8절)와는 대조적인 주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9~13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찬양과 고백이며 천국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의 실천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같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대로 신전한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인간의 의와 실천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t. 6:33)

• 나팔을 불지 말라(2절) : 구제를 행하면서 진정한 연민과 애정이 아니라 자기 의의 과시를 위해서 행한다면 그는 결국 가난한 자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파렴치한 일 수밖에 없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이여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수요일 2 십자가의 길

본문 · 마태복음 7장 / 찬송가 · 341장

●●●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천국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삼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절)는 말씀은 누가복음 13:23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누가복음 13:24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뜻합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14절).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죄악 된 옛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쓴 뿌리가 되어 우리 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의 쓴 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송두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에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비밀(행 7:55~56)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4)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Mt. 7:14)

•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5절) :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나는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자보다는 건전한 차이겠지만 아직 온전한 성도의 자세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티끌까지 빼주는 관계를 원하신다.

기도제목 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참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고(1~4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으며(5~13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많은 자를 고쳐 주셨고(14~16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23~34절). 거세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 되었고, 사납던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보고서도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34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예수님을 무리가 에워쌌습니다. 또한 한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19절)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를 얻을 것 같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처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영광만을 바라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22절)는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이 진짜이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마 8:34)

Then the whole town went out to meet Jesus. And when they saw him, they pleaded with him to leave their region. (Mt. 8:34)

•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 :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마치 동문서답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 감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향해 메시아의 길이 화생과 고난의 길임을 보여 주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3절).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5절) 물으시며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던 종교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2~13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서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8)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Mt. 9:38)

· 금식하는데(14절) : 이 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되었던 금식일, 즉 속죄일, 부활절 전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멜 9일 중의 하루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감동과 위임목사님의 영감을 강권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10장 / 찬송가 · 447장

●●●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이들을 복음 사역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5~15절)와 핍박에 대한 인내(16~23절)와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24~33절). 또한 복음과 세상과의 대립(34~39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40~42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 선포의 절대적인 사명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 갈수록 더 많은 핍박과 세상적인 손해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3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39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적인 요구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 10:40)

He who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the one who sent me. (Mt. 10:40)

•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16절) : 지혜로움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혜로움에 순수함이 결여될 때 그것은 쉽게 교활함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순결해야 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보좌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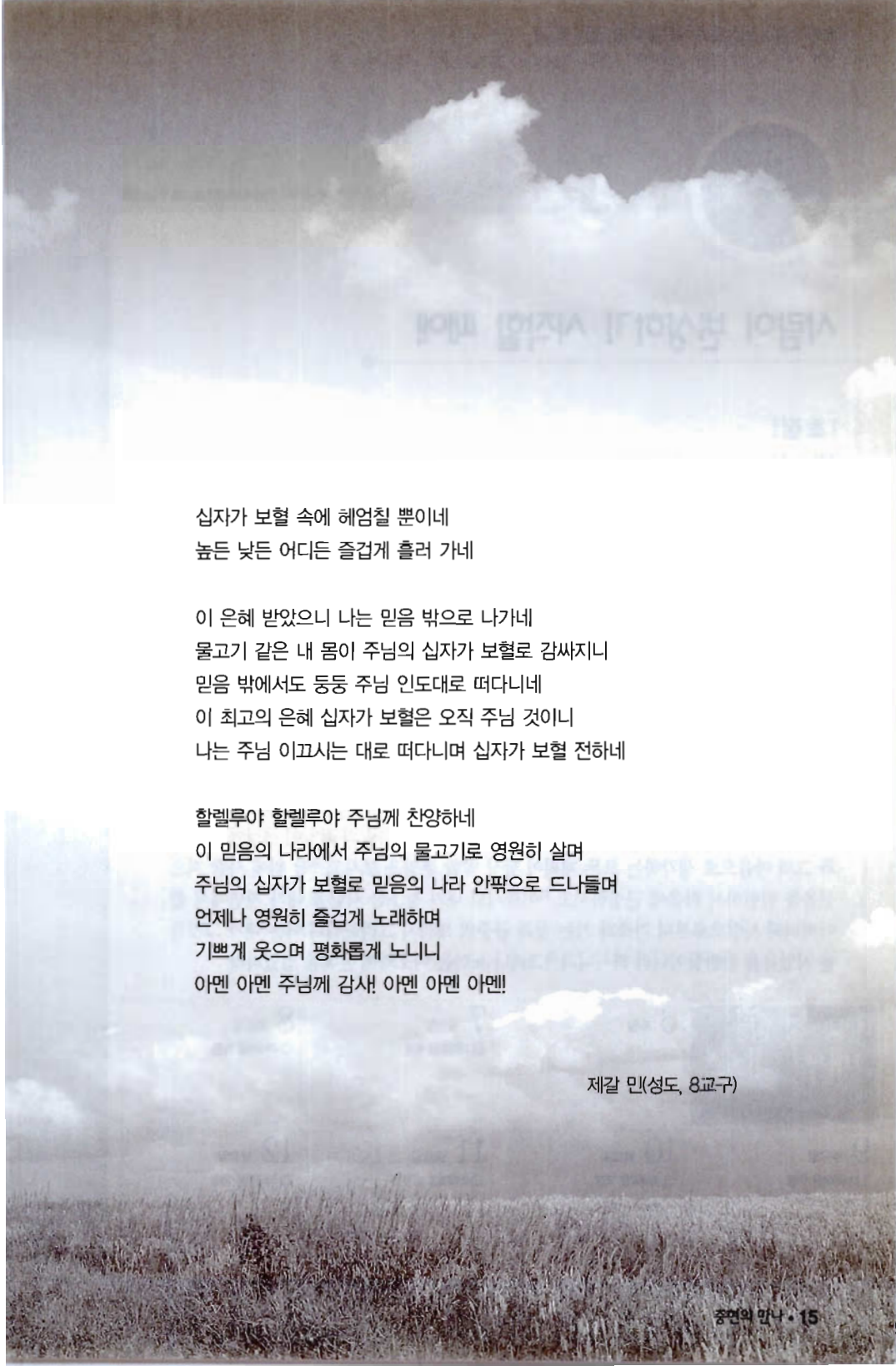
믿음의 나라로

세상 환할 때 내 욕심에 취해 어둔 길 멀리 돌아 헤매다
세상 어둠 때 내 욕심에 깨어나니
밝은 길 가까이 주님 떠미시네

십자가 이정표 따라가니 믿음의 나라가 보이누나
내가 떠났던 아버지가 계신 집
탕자 되어 돌아와 앉드려 비오니
예수님이 반기시며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으니
그 은혜에 눈물 솟구치네
이제 새 사람 되어 새 날이 밝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로 간구하니
희한하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죽을 길을 막아 주시네

믿음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찼네
나는 믿음의 나라 물고기 되어
팔이 없으니 들 것도 없고 다리가 없으니 갈 곳도 없이



십자가 보혈 속에 헤엄칠 뿐이네
높든 낮든 어디든 즐겁게 흘러 가네

이 은혜 받았으니 나는 믿음 밖으로 나가네
물고기 같은 내 몸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싸지니
믿음 밖에서도 뚱뚱 주님 인도대로 떠다니네
이 최고의 은혜 십자가 보혈은 오직 주님 것이니
나는 주님 이끄시는 대로 떠다니며 십자가 보혈 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네
이 믿음의 나라에서 주님의 물고기로 영원히 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의 나라 안팎으로 드나들며
언제나 영원히 즐겁게 노래하며
기쁘게 웃으며 평화롭게 노니니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 아멘 아멘 아멘!

제갈 민(성도, 8교구)

1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사람이 변성하기 시작할 때에

| 초점 |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라

| 찬송 |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본문 | 창세기 6:1~8

"사람이 땅 위에 변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㉑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㉒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㉓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㉔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㉕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㉖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㉗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6 주일

7 월요일
☐ 마태복음 11장

8 화요일
☐ 마태복음 12장

9 수요일
☐ 마태복음 13장

10 목요일
☐ 마태복음 14장

11 금요일
☐ 마태복음 15장

12 토요일
☐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타락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곡된 아름다움과 명성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 □□을 보고 □□□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질서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결혼했음을 보여 줍니다.

※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타락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언을 하 시게 됐습니까?

창 6:3 _____

※ 위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세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와 관계가 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창 6:5 _____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까닭에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가장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심각하게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막 7:21~22)

사도 바울의 증언(롬 1:28~31)

“또한 그들이 □□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 □□, □□, □□가 가득한 자요 □□, □□, □□, □□, □□이 가득한 자요 □□□□하는 자요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요 □□하는 자요 □□한 자요 □□하는 자요 □을 도모하는 자요 □□를 거역하는 자요 □□한 자요 □□하는 자요 □□한 자요 □□□□한 자라.”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

※창세기 6:6의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의 의미

이것은 인간의 타락함과 그 마음의 부패한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장차 죄의 근원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영원한 구속의 표현입니다.

2) □□의 의미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에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납니다.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여 세상을 향한 구원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구원의 은혜에 머무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심판과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는 심판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총체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왜곡된 아름다움과 명성을 좇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민 6:25~26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 하나님의 심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 ② 믿음의 성도들이 죄악 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 ③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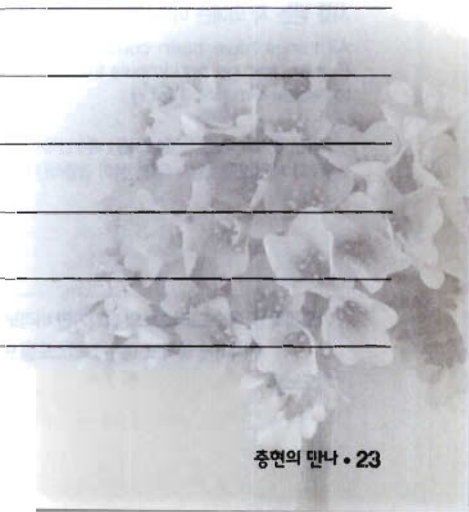
죄에서 떠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15~16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본문 · 마태복음 11장 / 찬송가 · 272장

●●●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25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요 1:12). 예수님은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All things have been committed to me by my Father.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and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Mt. 11:27)

-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21,23절) :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전도여행 하신 갈릴리 땅.
- 두로와 시돈(22절) :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 땅.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38절). 이들은 출애굽할 때의 표적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죄 값으로 인한 멸망의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표적임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40)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a huge fish, so the Son of Man will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Mt. 12:40)

• 성전보다 더 큰 애(6절) :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최고의 존재였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전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서 성전의 실체이심을 보여 주신 것이다.

기도제목 ①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13장 / 찬송가 · 143장

●●●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31절). 여러 씨앗 중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복음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작고 볼품이 없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은 엄청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알의 씨앗은 작은 충격에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이 약해 보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크고 무성해지며, 나중에는 새들이 찾아 와서 머물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할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이 하찮게 여기며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자라나고 있으며 곧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2)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Mt. 13:32)

• 밭은 세상(마 13:38) : 넓은 의미에서 밭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온세상이라 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 전 세계인을 분명히 보여 준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14장 / 찬송가 · 549장

●●●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29절). 그러나 그는 곧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30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위의 풍랑을 의식한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승리의 순간을 맞보지만 곧 처참한 실패로 인하여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심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 1:6).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며 진진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쓴 뿌리를 모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Mt. 14:31)

• 계파사렛(34절):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땅아.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기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15장 / 찬송가 · 145장

●●●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전통을 따라 구전되어 오던 원칙들로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 절대적인 계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순 명료하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절).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전통도 말씀의 권위와 동일시되거나 말씀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결정적 차이는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8~9절). 외형적인 그 어떤 충성보다 성도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신자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Mt. 15:8)

- **가나안 여자(22절)** : 마가복음 7:26에는 ‘수로보니게’라는 고유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여인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 **개들에게(26절)** : 고대 세계에는 자기 민족만이 최고 문화인이고 다른 민족은 야만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종교적 우월감에 젖어 다른 민족은 개로 표현하였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별 전도 및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 주님 곁을 끊임없이 맴돌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아시고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4절).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갈수록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고전 1:18).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15절). 이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8절).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기초 없는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바른 신앙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t. 16:16)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1절) : 바리새인은 천사와 마귀가 체계적인 계급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후세계와 영혼불멸이 있다고 믿었다. 반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였으며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단기선교 예지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도 영산 특별

영도 영산 특별

영도 영산 특별

영도 영산 특별

영도 영산 특별

영도 영산 특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종려주일 · 개전(13일) 월요일 · 권위(14일) 화요일 · 변론(15일) 수요일 · 음모(16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마 21:1~11)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눈물

(눅 19:41~44)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마 21:18~19)

성전 청결 사건

(눅 19:45~48)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눅 20:1~8)

경고의 세 가지 비유

(마 21:28~46, 22:1~14)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눅 21:5~38)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마 26:3~5)

유다의 반역

(마 26:14~16)

목요일 · 준비(17일) 금요일 · 수난(18일) 토요일 · 예비(19일) 부활주일 · 승리(20일)



유월절 식사(성만찬)
(마 26:17~29)
예수님의 기도와
고별 설교
(요 13:31~35, 17장)



배반당하고 잡히심
(막 14:26,32~52)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심
(마 27:21~31)
십자가에서 죽으심
(마 27:32~50)



무덤에 장사되심
(마 27:57~66)



부활하심
(마 28장)

2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너를 위하여

| 초점 |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 찬송 |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

| 본문 | 창세기 6:9~14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¹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¹¹⁾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¹²⁾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 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¹³⁾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¹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일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3 주일

14 월요일

☐ 미태복음 17장

15 화요일

☐ 미태복음 18장

16 수요일

☐ 미태복음 19장

17 목요일

☐ 미태복음 20장

18 금요일

☐ 미태복음 21장

19 토요일

☐ 미태복음 22장

※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가서야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왜 창세기 6:9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

※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1) 노아는 이었다

성경은 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노아가 인 이유는 하나님께 를 입었기 때문입니다(창 6:8).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 노아는 한 자였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대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는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며 온 세상에 가득 찼는지를 보여 줍니다.

3) 노아는 하나님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온 땅이

창 6:11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과 난폭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부패와 포악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 이어야 합니다.

창 6:12

그 시대를 부패하고 난폭하게 만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종류의 죄악을 쏟아 놓았습니다.

창 6:13

하나님께서서는 세 번씩이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를 쏟아 놓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언급하실 만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함과 심각한 타락의 끝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창 6:14 _____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피하는 가장 놀라운 자비로 다가옵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만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약속인 은혜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언약으로 주어진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언약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 16:31 _____

※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 과 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에 협조하고 목회자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시대에 죄악은 늘 관영하고 팽배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눅 17:26~27 _____

※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 ②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걷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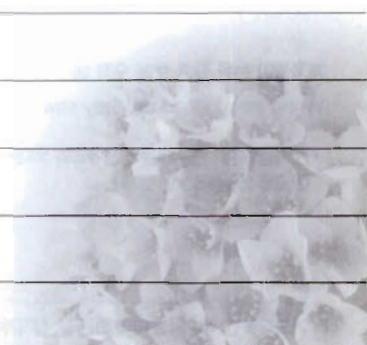
견고함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8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3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마태복음 17장 / 찬송가 · 151장

●●●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간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옛세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28)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고, 제자들은 잠시 동안 어렵듯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9절).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참되고 완전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완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풀이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로 인해 매우 근심했습니다(22~23절).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 17:8)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Mt. 17:8)

• 반 세겔(24절) : 반 세겔은 성전 수리와 유지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에게 자발적으로 거두던 자체세로서 매년 한 번씩 4달월(2~3월) 15일경에 받던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4절).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묻자 주님은 한없는 용서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용서는 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없는 용서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32절).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의 빛을 진 자들인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죄 용서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요일 4:20).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든 교만과 자랑, 어리석은 경쟁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고(갈 5:24),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회개할 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Mt. 18:4)

•만 달란트(24절) : 금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약 90,000일, 즉 대략 25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이다. 그런데 이것의 또 만 배이니 결국 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뜻한다.

기도제목 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사랑으로 겸손히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 · 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19장 / 찬송가 · 575장

●●●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24절).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의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골 3:2~3). 영적인 의미에서, 부자와 반대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린 아이입니다(마 5:3, 18:3).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주님께 얻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27절).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자기 자랑과 공로가 베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헌신에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마 18:1).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열두 보좌에 앉을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28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복(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이 많다'라는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30절). 먼저 믿은 자로서 그동안의 자신의 희생과 수고의 공력만을 셈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Mt. 19:29)

•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24절) : 이 비유는 영생이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말한다.

기도제목 ①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② 시순절(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주님은 그곳에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아시면서도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28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닥칠 환난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눅 14:25~33).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보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정과 욕심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21절).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히시기를 요청했지만,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과 상급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의 몫임을 그녀에게 알려셨습니다(23절).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갈 5:2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t. 20:28)

• 내가 마시려는 잔(22절) : 구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 여기의 잔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넓은 길보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1장 / 찬송가 · 150장

●●●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새끼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사 62:11). 시온 딸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유다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육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거할 곳이 없어 마구간의 구유에 나신 주님(눅 2:12)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빌 2:6~9). 주님의 겸손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소외 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모든 공생애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소리지르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9절).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환영 소리는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벧전 5:5).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마 21:7)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Mt. 21:7)

· 나귀 새끼(2절) :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어 나귀를 끌어오도록 하신 것은 스가랴 9:9 예언과 관련된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기도제목 ‘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2장 / 찬송가 · 160장

●●● 혼인 잔치 비유는 자기 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온 유대 민족의 역사와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1~14절).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실을 찾고자 예수님께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인 질문인 가이사와의 것과 하나님의 것(15~22절), 신학적 질문인 부활에 대한 것(23~33절), 그리고 종교적 율법에 대한 질문인 가장 큰 계명(34~4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율법과 전통으로 도전하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42절).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45절)라고 되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와 전통의 쓴 뿌리를 붙잡고 자기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마 22:34~35)

Hearing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 Pharisees got together. One of them, an expert in the law, tested him with this question:(Mt. 22:34~35)

• 어떤 임금, 자기 아들, 혼인 잔치, 종(2~11절) :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은 예수로, 혼인 잔치는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보냄 받았던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시금 보냄 받은 다른 종들은 오신 메시아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를 상징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목회자)와 종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본들께 하소서.

기도노트



부활 후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후 40여 일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부활의 복음이 되셨다.
예수님은 대략 10회 정도 자신을 나타내셨다.

1.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막 16:9, 요 20:11~18)

2.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심

(마 28:8~10)

3.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심

(막 16:12~13, 눅 24:13~35)

4.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눅 24:34, 고전 15:5)

5. 엠마오 도상에서 다락방에 나타나심

(눅 24:36~43, 요 20:19~23)

6. 다락방에서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심(도마)

(요 20:24~29)

7. 다락방에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심

(요 21:1~25)

8. 디베랴 바다에서 다불 산에 나타나심

(마 28:16~20)

9. 다불 산에서 다락방에 나타나심

(막 16:14~18, 눅 24:44~49)

10. 다락방에서 감람 산에 나타나심

(막 16:19~20, 눅 24:50~53, 행 1:4~11)

(월밍턴 성경 연구 참조)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초점|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라

|찬송|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 의 은혜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 를 더욱 사랑

|본문| 창세기 6:22, 7:5

²²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⁵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0 주일

23 수요일

☐ 잠언 5장

24 목요일

☐ 잠언 6장

21 월요일

☐ 잠언 3장

25 금요일

☐ 잠언 7장

22 화요일

☐ 잠언 4장

26 토요일

☐ 잠언 8장

노아가 만든 방주는 길이가 약 137미터였고, 넓이는 약 23미터였으며, 높이는 약 14미터로 5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이 규모는 125,000마리 이상의 양을 실을 수 있는 넓이로 그야말로 거대한 목조선이었습니다.

※ 성경을 읽고 각자 방주의 모형을 그려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되

방주의 규모나 생김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내리신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방주에 대한 규모와 생김새를 살펴보는 것보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청과 노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론 각 종류의 짐승들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 6:22 _____

창 7:5 _____

히 11:7 _____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완성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노아와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좋아 보여도 방주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실제로 심판을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가족 구원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홍수가 언제 밀려들지 알 수 없었듯이 언제 죽음의 권세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방주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이유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만이라도 방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심판 앞에 놓인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무섭게 차오르는 물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날에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노아와 혈육 있는 생명체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신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다시금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낸 후에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벧전 3:20 _____

※ 가족 가운데 아직 인가귀도(나와 내 집안 식구 모두를 십자가의 도로 이끈다)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모든 가족과 친척이 인가귀도 되게 하소서.
- ② 삶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본문 · 잠언 3장 / 찬송가 · 536장

●●●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먼저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회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5~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마 10:29~30).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히 10: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좇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의 삶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 3:6)

• 지혜는 … 생명의 나무(18절) : ‘생명의 나무’는 창세기 29의 생명의 나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뜻한다.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사람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사고의 중심지이며, 사람의 생을 주관하는 곳으로 의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23절).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지만, 그 타락된 본성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어 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 그의 인도하심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정결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만을 좇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Prov. 4:23)

• 생명의 해가 길리라(10절) : 지혜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위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5장 / 찬송가 · 275장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 길에 따라 보옵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22절). 이처럼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습성에 따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판 땅들이여 내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시 7:15).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¹⁾를 영접함으로써 자기의 악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23절).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미하게 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훈계의 삶이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잠 5:21)

For a man's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and he examines all his paths. (Prov. 5:21)

•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21절) :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숨은 동기를 헤아리시며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

기도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복음²⁾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네 가지의 교훈이 열거됩니다. 보중에 관한 경고(1~5절),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6~11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경고(12~1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죄악 가운데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거짓된 혀'는 남을 속이는 삶을 말하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말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며,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는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화목해야 할 이웃을 분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든 악함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잠 6:17)

Haughty eyes, a lying tongue, hands that shed innocent blood, (Prov. 6:17)

• 이간하는 자(19절) : 마귀는 역사할 때 처음부터 분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한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
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7장 / 찬송가 · 420장

●●●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음행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음행에서 벗어날 때 주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5절).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1~3절). ‘간직하라’는 것은 귀중한 보화를 노란 당하지 않게 금고에 숨겨두듯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젊은이들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길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과 죽은 지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마음 판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잠 7:1)

My son, keep my words and store up my commands within you.(Prov. 7:1)

·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통해 되리라(23절) : 이는 음란에 빠지는 자들이 당하게 될 치명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성경은 강한 경고를 통해 죄악에 빠지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미 음란에 빠진 자가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기도제목 ·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⑦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10절)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보다는 지혜의 훈계와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잠 3:14). 지혜의 훈계와 지식은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인 영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금, 은보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네(잠 8:12)

I, wisdom, dwell together with prudence; I possess knowledge and discretion.(Prov. 8:12)

•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34절) :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간절한 것이어야 힘을 알려 준다.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부활 신앙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가 있었다. 그는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라이트 목사(Henry Francis Lyte)였다. 건강을 위하여 따뜻한 곳에서 살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다. 첫 번째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도 라이트 목사가 나타나지 않아 여관방을 열었더니 노인 목사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책상에는 밤 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신자들이 부르는 찬송가인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Abide with me, 찬 481장)의 가사였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 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찰흙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개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들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묵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홍수 후에 노아가

|초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찬송|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본문| 창세기 9:28~29

⁽²⁸⁾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²⁹⁾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7 주일

28 월요일

☐ 창연 9장

29 화요일

☐ 창연 10장

30 수요일

☐ 창연 11장

1 목요일

☐ 창연 12장

2 금요일

☐ 창연 13장

3 토요일

☐ 창연 14장

※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 9:15~17 _____

농사를 시작하여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포도 열매를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노아가 포도 열매를 얻듯이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직업에서 삶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과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하여

※ 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엡 5:18 _____

딤후 1:7 _____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자신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보았고 함은 이 사실을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도 역시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롬 3:23 _____

술이 깨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훗김에 자신의 아들을 저주한 일입니다. 그는 함에게 자신의 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므로 너도 수치를 당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저주하는 노아의 모습은 그가 방주를 짓기 전에 보여 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창 9:24 _____

진정한 은혜의 주

홍수 후에 벌어진 이러한 노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 6:8~10

노아가 아무리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각자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② 천국일꾼으로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경배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5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잠언 9장 / 찬송가 · 525장

●●● 지혜가 집에 잔칫상을 차려 놓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3절). 이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광야의 걸인 같은 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철저히 회개했던 이런 죄인들이 바로 지혜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4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Prov. 9:10)

• 월급 기동(1절) :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킨다. 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일곱 교회로 표현한 것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성경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16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삶의 수고는 생명으로 이끌지만, 악인의 수고는 죄, 즉 엄중한 심판에 이른다며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수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삼상 15:2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수고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길에서 믿음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가시밭 길을 걸어가는 수고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중인이 되는 수고입니다. 믿음의 수고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잠 10:16)

The wages of the righteous bring them life, but the income of the wicked brings them punishment.(Prov. 10:16)

- 7년한 자의 궁핍은 그 열망이라(15절) :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자가 패망할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당하게 될 결과를 의미한다.
- 화오라바람(25절) : 악인이 당하게 될 멸망의 신속함을 표현한 말이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 · 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1장 / 찬송가 · 484장

●●● 미련한 자는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이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눅 12:19~20).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 소유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불의한 재물도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옴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헛된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살전 5:6).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벧후 3:11~12). 또한 세상과 벗 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약 4:4).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잠 11:28)

Whoever trusts in his riches will fall, but the righteous will thrive like a green leaf. (Prov. 11:28)

• 돼지 코에 금고리(22절) : 성경에서 돼지는 미련하고 가증스런 짐승으로 언급되는데(11:7). 본 절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여인의 내면적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기도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중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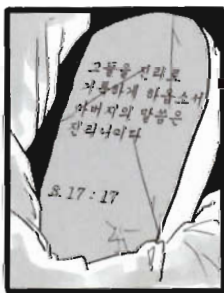
기도노트

Figure 2



모세4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4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